

연기 알면 욕망도 개인 아닌 공생 위해 발현

성태용 교수의 손오공이 기가 막혀

④ 근두운을 타고 술법을 부리는 손오공

전 주에 금단대도, 즉 도교의 가장 핵심적인 수양법을 이야기했죠? 수보리 조사가 전한 불로장생의 비법이라는 것이 금단대도라면 수보리 조사라는 이름이 좀 안 어울리죠? 수보리는 우리 불자들에게 아주 친숙한 이름이잖아요? 부처님의 십대제가 가운데 공(空)의 이치에 대해 가장 깊은 깨달음을 가진 제자, 즉 해공제일(解空第一) 수보리 존자와 혼동이 되어서 말이지요. 금강경 읽으면 바로 수보리 존자 등장하시잖아요? 그 수보리존자하고 이름은 같지만 실상은 전혀 다른 분이라는 것을 알아야겠지요? 그런데 서유기의 저자는 아마도 일부러 이렇게 이름을 정하지 않았나 싶어요. 서유기는 불교와 도교를 적절하게 뒤섞는 것이 기본이거든요. 그래서 금단대도를 배우면 부처님 신선도 마음대로 뉘 수 있다고 한 것이고요. 그렇지만 이 이야기에서는 불교와 도교를 그렇게 어중간하게 뒤섞을 생각은 없습니다. 가릴 수 있는 때까지는 가려보려고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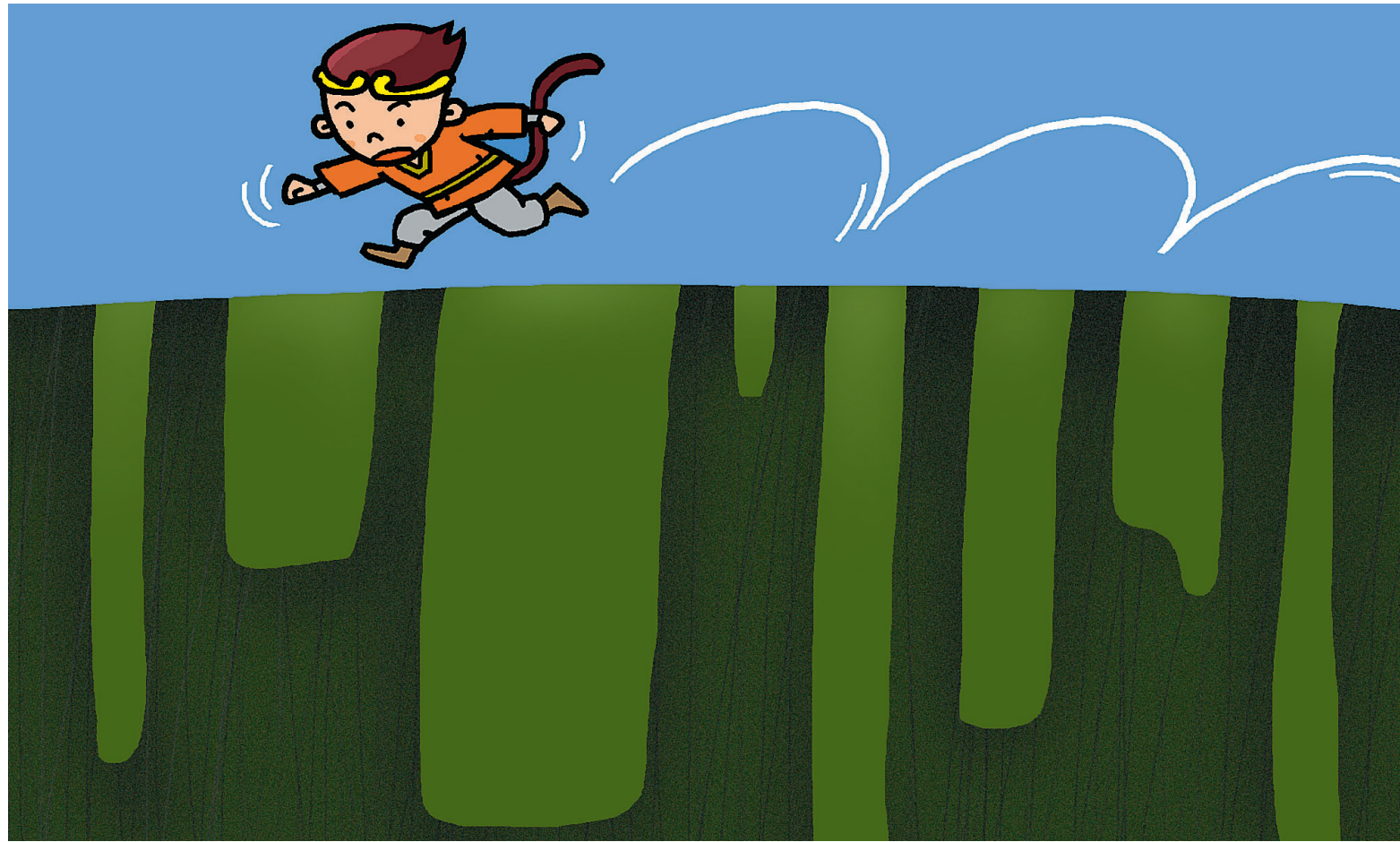
가장 근본적인 차이는 도교는 인간의 욕망의 궁극인 불로장생을 꿈꾼다는 겁니다. 불교는 그런 색체가 적죠. 부처님의 일화 하나 소개드릴까요? 장로니계경(長老尼偈經)에 나오는 일화지요.

키사코타미(Kissagotami)라는 여인이 자신의 아이를 잃고 거의 미친 상태에서 아이를 살릴 방법을 찾아 다닙니다. 그러다가 부처님에게까지 찾아오게 되고, 애절하게 자기의 아들을 살려달라고 청하게 됩니다. 이때 부처님은 그녀에게 "마을로 가서 겨자씨를 얻어와야 한다. 그런데 그 겨자씨는 반드시 죽은 사람이 없는 집에서 얻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코타미(Gotami)는 마을로 달려가서 죽은 사람이 없는 집에서 겨자씨를 얻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찾아도 죽은 사람이 없는 집은 없었습니다.

그녀는 부처님이 하신 말씀의 뜻을 깨닫습니다. 아이를 묘지에 안장합니다. 그리고 "마을에서도, 도시에서도, 신들의 세계에서도 벗어날 수 없는 진리, 참된 진리는 무상함, 덧없는 것"이라는 깨달음을 담은 계승을 출조합니다. 그리고 다시 부처님을 만납니다. 부처님께서 겨자씨를 얻었느냐고 물어보자 자신에게 이미 겨자씨는 필요없다고 말합니다. 자기 자신을 되찾게 해주신 부처님께 예경하고 출가하여 비구니가 됩니다.

이러한 부처님의 가르침에는 육체적인 영생에 대한 지향이 없습니다. 오히려 모든 것의 무상함을 깨닫는 것이 중요하게 여겨지지요. 진리에 대한 깨달음이 목표인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불로장생을 꾀하는 도교와는 근본적으로 지향이 다르다 말할 수 있지요. 물론 불교도 기복적인 요소를 벗어날 길이 없고, 우리 인간의 욕망 성취를 약속하는 세속화의 모습을 띄게 되지만, 애초부터 불로장생을 꾀하는 도교와는 큰 차이가 있다는 것을 바로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림·최주현

도교는 분디 목적부터가 수명을 늘리고 신선이 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으며, 그 아래에 수많은 인간의 욕구를 달성하려는 방법들을 무수히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가지 술법이라든가 비법 등이 적극적으로 연구됩니다. 부적술, 강신술, 방중술, 기타 등등. 이런 점들도 불교와 매우 대비되는 모습이지요. 불교는 이런 요소들에 대하여 매우 부정적이거든요. 물론 불교의 말기 형태인 밀교에서는 매우 많은 술법적인 요소를 찾을 수 있지만 불교 일반적으로는 초능력이라든가 술법을 적극적으로 수용하지 않습니다. 육신통(六神通) 같은 것들을 인정하지만, 그것을 수행의 과정에 나타나는 힘일 뿐, 그것 자체에 대한 추구가 목적으로 되는 일은 없습니다. 더우기 여러 가지 술법들을 추구하는 것은 오히려 엄하게 금하고 있기도 합니다. 여러 가지 술법이나 신통 등을 내세우는 모습을 보이는 불교는 역시 세속화되고 타락한 불교의 모습일 뿐이며, 어느 정도는 도교의 영향을 받은 것이라고도 할 수 있다는 것 또한 분명히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불교와 도교의 차이점은 일단 이 정도로 정리해 두고요, 여기 이야기의 초점은 손오공이 배운 것은 도교적인 수행법과 술법이라는 것입니다. 수행법은 금단의 술이라 한다면, 술법은 어떤 것들을 배웠을까요? 서유기에서는 손오공이 72가지의 술법을 배웠다고 합니다. 72지살에 해당하는 술법을 배웠다는 것이죠. 여기엔 둔갑술, 분신술 등의 여러 술법이 포함됩니다. 그 가운데 하나만 있어도 슈퍼 맨, 스파이더 맨 등의 초인들이 하나도 부럽지 않을테죠. 하하. 그리고 거기에 더해 특별한 술법 하나를 배웠습니다. 손오공의 술법 가운데 가장 자주 등장하는, 바로 바로 '근두운'이라는 구름타는 술법이지요. 애초에

재주를 바라는 욕망은 '고' (苦) 서원이 삶의 동력될 때 '행복' 연기의 가르침으로 정진해야

구름타는 술법을 배우긴 배웠는데, 수보리 조사가 그제 구름을 타는 거냐, 구름에 기어오르는 거냐 비아냥대면서 제대로 된 구름타기를 가르쳐주는데, 바로 그제 근두운입니다. 한번 공중제비를 돌아 뛰어 오르며 구름을 타면 단숨에 심산 팔천리를 날아갈 수 있는 술법인 거죠. 요즘의 거리로 한번 환산해 보실래요? 1리가 4km니까, 108,000 x 4 = 432,000, 그러니까 눈 깜짝할 사이에 432,000km를 갈 수 있는 것이군요. 흠! 나칠게나~, 눈이 반짝 반짝 하시는 게 흠 그런거, 아니 그런 재주의 백분의 일이라도 가르쳐주는 도사 찾아서 나서실 기세! 참으세요! 이런 신통한 재주 가졌다는 사람치고 제대로 된 사람 본적이 없고, 그런 재주 찾아다니던 사람 잘되는 꼴 본 적이 없 다니니까요!

당신이 고무과문한 거지 정말 그런 재주 가진 도사가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아느냐구요? 애고~ 앞에 이야기 좀 읽어 보세요. 제가 몇 번이나 이야기 했잖 습니까요. 그런 재주를 바라는 것 자체가 하나의 욕망이구요. 그리고 그런 재주 하나 가진 것은 남이 가지지 않은 어떤 신기한 기구나 도구를 가진 것과 마찬가지로요. 그러니까 그런 재주를 탐내는 것은 결국 남 안 가진 신기한 물건 가지려는 탐욕과 다를 게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탐욕의 추구가 행복을 가져올 터이 아니냐? 하나 가지면 또 하나 가지고 싶은 끝없는

욕망의 계속되는 것은 물질적인 것에 대한 탐욕과 마찬가지로요. 그런 탐욕의 끝에는 언제나 괴로움이 있을 뿐이라는 것이 부처님의 가르침이구요.

흠~ 삼패선생은 너무 고상한 척 하는게 문제라구요? 탐욕을 벗어나려고만 하면 어쩌냐구요? "소년이여, 야망을 가져라!" "Boys, be ambitious!" 이런 말은 못들어봤나구요? 헤헷, 제가 왜 못들어봤겠어요. 저도 무조건 욕망 버리라는 것엔 동의 못해요. 삶의 동력을 잃게 되면 큰 일 나죠. 그렇지만 탐욕이라는 것이 고통의 뿌리라는 것 또한 분명하지 않은가요? 그렇다면 어쩌라는 말이나구요? 앞에서 이미 말씀 드렸죠? 서원(誓願)이 중요하다고요. 탐욕에 의해서 삶이 아니라 바로 서원이 삶의 동력이 되도록 해야 하는 거죠. 그렇다면 탐욕과 서원은 무엇이 다른가가 문제겠네요. 탐욕은 열심히 버리고 서원을 열심히 세우면 되는 거 아니냐구요?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야말로 불교적인 정신과 어그러지는 겁니다. 부처와 중생이 둘이 아니라 했듯이, 탐욕과 서원도 둘이 아닙니다. 아상(我相)을 버리지 못하고 모든 것을 자기의 소유로 끌어 당기려 할 때가 바로 탐욕입니다. 그것을 버리고 서원을 세우는 것이 아닙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 연기(緣起)의 진리를 알게 되면 아상이 없어지게 됩니다. 나와 나와 사회와 국가와 세계, 그것이 무한한 연기성 위에 놓여 있다는 것을 알게 되면 자연 내만을 위한 욕망이 너와 사회와 국가와 나아가 온 중생이 모두 잘되는 방향으로 확장됩니다. 그것이 바로 서원인 것입니다. 그런데 현실의 불교는 아직도 무조건 욕망 버리라는 것만 강조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앞에서 말한대로 사후세계는 절에 와서나 크게 노래하고, 세속에 나가서는 그저 욕망에 따른 삶을 살아가는 모습이 우리 불자들의

부끄러운 모습이 아닐까 생각되네요. 애고~ 저의 모습인 것을 모든 불자들에게의 모습으로 확대하지 말라구요? 알았습니다. 사후세계 큰 뜻 세우시고 불퇴전의 길을 가고 계신 많은 도반들께 합장! 그런데 문제는 손오공이네요. 아직 진리에 대한 깨달음은 없는 상태, 그저 불로장생이라는 세속적인 목표에만 매달리고 있는 손오공이 수많은 재주를 가지게 되었어요. 이게 복일까요 화일까요? 이런 분명히 재앙입니다. 어린아이에게 칼을 쥐어준 것이나 마찬가지거든요. 진리를 알지 못하는 이가 힘을 가졌을 때, 그 위험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겠지요? 그 위험성은 남을 해치는 것으로 바로 나타나는 않을 수 있어요. 먼저 자신을 해치기 쉽다는 것입니다. 이런 옛말이 있어요. "사람은 죄가 없지만 보물을 가진 것이 죄다" 또 이런 말도 있지요. "진귀한 보물을 가진 자는 밤에 나다니지를 말아야하고, 큰 임무를 맡은 이는 적을 가볍게 보지 말아야 한다" (慎重寶者, 不以夜行; 任大功者, 不以輕敵 - 戰國策). 재주를 가진 것은 바로 보물을 가진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진리를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어떤 재주를 가지게 되면 그것을 자랑하고 싶어 마려이지요. 그 재주를 통해 자신을 살찌우고 변화시키는 데 힘을 쓰기보다는 남들에게 자랑부터 하고 싶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그것을 탐내는 이들에게 해를 당하게 마려이라는 거죠. 수보리조사는 우선 이점을 크게 경계하고 야단을 친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내가 분명 앞으로 이 재주로 큰 난리를 일으킬 것이다. 만약 이 재주가 나에게서 나간 것이 알려지면 나도 그 재앙에 휩쓸릴 것이다"라고 말하면서 문하에서 축출해버리는 겁니다. 진리를 깨우치지 못한 자가 재주를 지니고 있으면 얼마나 위험한 일이 벌어질 수 있는가를 경계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 위험성은 손오공이 문하 제자들에게 자신의 재주를 자랑하는 데서 이미 드러나고 있고요. 쓸데없이 자기 재주를 자랑하는 이는 "자신의 발전을 위한 배움" (爲己之學)을 하는 존재가 아니라 '남이 알아주기를 바라는 배움' (爲人之學)을 목표로 하는 것이지요. 이런 <논어(論語)>에 나오는 공자 말씀입니다. 그렇게 남에게 자랑하기를 좋아하고, 그것을 통해 자신의 존재감을 확보하려는 존재는 애시당초 도(道)와는 거리가 먼 것이죠. 좀 관찮은 제자로, 차분하게 성장하기를 바랐던 제자가 출랑 출랑 배운 재주를 자랑하는 모습을 보았을 때! 스승은 크게 삼심할 수 밖에요. 그 결과는 가르침의 증거입니다. 더 이상의 가르침을 내린다는 것은 서로 간에 재앙을 더할 뿐이지요. 그래서 벼락같이 야단을 쳐 내쫓아 버립니다. "내가 이곳을 떠나면 반드시 옮지 못한 생각을 낼 것이다. 그러니 어떤 재앙을 일으키고 어떤 못된 짓을 한다 해도 결코 내 제자란 소리를 해선 안된다"하는 엄중한 경고와 더불어서요. 흠~손오공, 낙동강 오리발 신세가 된건가요? 그렇지 않은군요. 그래도 막강한 도술 원숭이가 된 거니까, 애초의 목적을 어느정도 달성한 셈이지요? 그러니 이제 고향으로 간다 하더라도 체면 구걸 정도는 훌쩍 넘었군요. 그래서 그렇게 어렵게 왔던 길을 근두운 타고 한번에 훅! 다음 시간에는 고향 돌아간 손오공의 빛나는 모습을 그려 볼 수 있겠지요? 기대하시라~

마하연여행사

예약문의 02)365-7747

www.mahayon.com 대표 청정행 두손모음

오시는 길 : 서울 조계사 앞

출발 확정 상품	
인도 11일	출발일 : 11월22일 요금문의 [보현도량]성도/아미산/낙산대불
부탄/네팔 8일	출발일 : 12월10일 요금문의 양곤/바간/만달레이/헤호
스리랑카 8일	출발일 : 12월1일 요금문의 양곤/바간/만달레이/헤호2박(절로/벵피야동굴)
5일	출발일 : 10월20일 요금문의
6일	출발일 : 9월5일, 10월17일 요금문의
7일	출발일 : 11월14일, 12월16일 요금문의

미얀마 - 중국 성지순례

한시출발

선불 선량의 나라 미얀마

- 양곤/바간/만달레이/헤호 6일
- 양곤/바간/만달레이/헤호/짜이티오 7일(3대성지 순례)
- 양곤/바간/만달레이/헤호/벵피야 7일
- 양곤/바간/헤호 5일

중국

- [지장도량] 구화산 - [관음도량] 보타산 6일
- [보현도량] 성도/아미산/낙산대불 5일
- [문수도량] 오대산/북경 5일
- [지장도량] 구화산/황산/항주 5일
- [관음도량] 보타산/낙가산/항주 5일
- 서안/용문석굴/소림사 5일
- 산둥 문화탐방 5일, 청도/곡부/태산 6일 - 웨리크루즈
- 태항산/천계산/요산(208M 중원대불) 5일
- 공중도시 면산 & 태항 대협곡 5일

인도/네팔/스리랑카

인도 11일(8대성지순례)
델리-바라나시-보드가야-나란다-라즈기르-바이살라-쿠시나गर-클루비나-스라바스티-산키시아-아그라

인도/네팔 15일
스리랑카 6일
클롬보-이누라디푸라-미힌탈레-담블라-시기리아-플로나루와-일루비라라-캔디

스리랑카 원전일주 8일
클롬보-이누라디푸라-담블라-시기리아-플로나루와-캔디-누와라엘리아-벵토타

스리랑카/인도/네팔 15일
클롬보-이누라디푸라-미힌탈레-담블라-시기리아-플로나루와-미탈레-캔디-클롬보-몽바이-바라나시-보드가야-라즈기르-파트나-바이살라-쿠시나गर-스라바스티-클루비나-카트만두-니가르코트

티베트/부탄

티베트 6일
성도-라싸-양드록추-간체-시가체

티베트핵심 하늘열차 8일
중경-라싸-정체-시가체-라싸-난주역-하늘열차

부탄/네팔 8일
키투만두-피로-팀푸-왕디포드랑-통사-푸니카-팀푸-피로-키투만두-니가르코트

동티베트 9일
성도-문찬-머얼킹-통달(오명불학원)-백목(아침스)-간딩-성도

미하연의 특별함

- 직영으로 중간 마진을 뺀 가격책정 (거침없는 상품가력)
- 오랜경험으로 현지 불교행사 진행
- 추가경비 일체 없는 가격책정
- 호텔 - 행사일정 - 식사 (타사 비교 필수)

라오스

라오스 6일
비엔티엔-루앙프라방-방비엥

라오스/베트남(하롱베이) 8일
하롱베이-비엔티엔-루앙프라방-방비엥

베트남/캄보디아

하롱베이/씨엠펙 6일

대만/홍콩

대만 5일
대만3대사찰

대만/홍콩 5일
홍콩(2)-대만(1)-화련

세계문화 탐방 베스트 상품

- 그리스 문화탐방 9일
- 하와이 문화탐방 6일
- 동유럽 문화탐방 8일
- 시유류 문화탐방 8일
- 미사부 문화탐방 9일
- 미동부 문화탐방 9일